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 일시 : 2023. 5. 19.(금) 10:00 ~ 12:53

◆ 장소 : 문화본부 4층 대회의실1

◆ 참석자 (위원 11명)

위원장 : ○○○

위 원 : ○○○, ○○○, ○○○, ○○○, ○○○, ○○○, ○○○,
○○○, ○○○, ○○○

배석자 : ○○○ 팀장, ○○○ 주무관

관계전문가: ○○○, ○○○

◆ 심의 안건 (총 38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 2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 5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17건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4건
-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 10건

(개회)

○ ○○○ 위원장

안녕하셨어요?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 위원께서 사임하셔서 정원이 열한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 개요를 담당자께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 주무관

오늘은 안건이 총 38건입니다. 조금 많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2건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가 '진법언해' 등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가 '법화영험전' 등 17건이 있고,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는 '○○이상국전집' 등 4건이 있습니다.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는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비파보' 등 10건이 있습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순서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다 사정들이 있어서요.

먼저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건 중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비파보'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하신 분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124페이지입니다.

○ ○○○(前 ○○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이걸 읽어나가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비파보>는 1920~1930년대 간에 이왕직 아악부에서 연주되던 주요 악기들의 파트보인데, 그 파트보는 가야금, 거문고, 피리, 대금, 또 양금, 비파까지도 들어있고요. 편종, 편경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관찬 악보들은 전부 다 총보 형식으로 해서 그 선율이 관은 피리, 대금, 아쟁을 포괄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선율로, 그래서 대개 현은 가야금, 거문고, 비파 등 대표적인 악보를 썼기 때문에 기존에 관찬 악보는 연주가들의 재량으로 대충 자기들이 그 음을 골간으로 연주자의 기량으로 해석해서 연주를 해왔는데, 이것은 각 파트보를 뒤서 악기별로 그 악기에 맞는 선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에서 이게 최초일 것입니다. 대한제국이 끝나고 궁정음악이 말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제례악을 제외한 궁정음악의 모든 곡들을 망라하고 있어요. 이러한 곡들이 대체로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악보들이 가교 역할을 해왔

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레악이 빠진 이유는, 제레악은 국가에서 그래도 종묘, 문묘는 행하고 있었어요. 다른 제레는 다 폐기됐지만. 일명 국립국악원 소장 아악부로 칭해지는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의 각 파트보는 전부 다 필사본입니다. 각각 1권 1책씩 현재 11책이 한 질로 전해지고 있어요.

현전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1939년 무렵 전형철이 개인적으로 음악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왕직 아악부의 당시 아악사장이셨던 함화진으로부터 아악부의 악보를 제공받아, 필생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필생으로 하여금 그대로 전사하게 한 뒤 본인의 낙원동 자택에 소장하던 악보들입니다. 당시 이왕직 아악부라는 음악기관은 일제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했어요. 그래서 악보 상태가 매우 안 좋았을 거예요. 지금 이왕직 악보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비파보」이고, 그 이왕직 아악부의 과거의 형태들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강릉 선교장의 '현금보 초'라는 게 있어요. 진짜 갱지에다가 원고지처럼 네모 칸이 그려진 곳에 악보를 그렸는데, 이왕직 아악부도 「비파보」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그런 형태였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형철이라는 사람이 개인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빌려 가서 그대로 옮기면서 필생을 시켰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정서된,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정서되어서 오히려 마치 이왕직 아악부에서 돈을 들여서 기획된 사업 같은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의 저본이 되었던 함화진 제공의 정간보는 사실 사라져서 알 수 없는데, 내용이 전혀 안 바뀌었다는 사실은 강릉에 남아 있는 악보나 「비파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한편 비파 역시 이왕직 아악부 시절에 음악 연주에서 주요 악기의 하나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형철 제작의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중에는 「비파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마침 국립국악원에서는 여민락을 비롯해서 영산회상 계열 등이 수록된 전형철 제작의 「가야금보」나 「현금보」와 대체로 일치하는 곡들의 악보가 바로 「비파보」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그 내용들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소장의 이 「비파보」는 1권 1책으로 서지 정보는 그렇고요. 1938년에 이왕직 아악부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줄곧 국립국악원에 소장되어 왔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요.

아랫단으로 넘어가서, 조사대상본은 1930년대 말에 제작된 필사본 악보들로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를 베낀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이 (등록) 신

청서에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정)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전형철에 의하여 새로이 정서된 뒤 국립국악원의 전신인 구왕궁 아악부로 전해져 현재까지 국가 전문음악기관인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여 왔고, 이왕직 아악부의 저술인 「비파보」 역시 이왕직 아악부에서 만들어진 이래 현재까지 국가 전문음악기관인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여 온 매우 신뢰할 만한 사료 들입니다.

책의 크기는, 서지 정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단락으로 가면, 전형철에 의하여 정서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역시 「비파보」와 같이 꺾지를 인쇄하여 그 위에 글을 쓰거나 꺾(罫)에 횡선을 그어 정간의 형태를 이룬 뒤 그 정간 안에 율명을 기입함으로써 정간보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기보 형태가 초기 정간보 즉, 세종 창안보인 세종시대의 악보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정간을 그려 넣은 뒤 거기에 율명을 기입해 놓는 방식으로 만들었죠.

그다음 단락을 보면,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표지 좌측에는 책 제목이 있고, 뒤에 그림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작은 글씨로 수록 악곡들의 큰 제목들, 영산회상이라고 하면 디테일한 곡 이름을 안 쓰고 곡명을 저렇게 명시했습니다. 지금 저것이 전형철이 정서한 악보들이예요. 나중에 혹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릉에 소장되어 있는 ‘현금보 초’를 보면 진짜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것은 관의 소장품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데, 다행히 전형철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필사한 것을 우연히 구왕궁 아악부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보관하게 되었고, 이왕직 아악부, 구왕궁 아악부,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지는 국가 음악기관에 계속 소장되어 왔습니다.

128쪽 아랫단을 보겠습니다.

이왕직 아악부의 「비파보」가 1938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당시 전통음악의 정간보와 오선보의 악보화 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선보의 완성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아악부 정간보의 완성 역시 우리 전통음악의 올바른 전승과 보존을 소명으로 여겼던 이왕직 아악부 소장 음악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제국 이래의 궁정음악이 일제를 거치고도 현재까지 전승이 가능했던 것은 궁정음악이 멸절 위기에 처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 음악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한 악보화 작업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록 악곡은 사실 이게 11권에 내용을 다 담기는 매우 어려워서 제가 공

통된 것을 관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곡목도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애초 이왕직 아악부에서 제작한 아악부 정간보 가운데 「비파보」만 남아 국립국악원에 보존되어왔을 뿐, 여타의 악보들은 행방이 묘연하여 사실상 실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악부 정간보가 완성되던 무렵과 유사 시기에 전형철이 당시 이왕직 아악부의 아악사장이었던 함화진으로부터 아악부 정간보를 제공받아(1939년 이전) 그 내용은 그대로 둔 채 필생을 시켜 그것들을 그대로 베끼게 함으로써 외관상 더 완비된 모습으로 재탄생시켰고, 그것들이 다시 원 제작자인 국립국악원, 이왕직 아악부로부터 구왕궁 아악부로 넘어가 국립국악원의 소유로 남아 보존될 수 있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감격적이라서 천행이다, 천행이다라고 한 열 번쯤은 외쳤습니다. 전형철이 재탄생시킨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원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립국악원 소장 「비파보」와 함께 아악부 정간보의 전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1권 11책의 정간보들은 현재 1930년대 제례악을 제외한 이왕직 아악부 음악의 전모를 담고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어떠한 이본도 발견되지 않은 진짜 유일본입니다. 원형 유지 정도는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전형철에 의하여 그대로 베껴지면서 전사돼서 오히려 완비된 모습이기 때문에 보존 상태는 정말 좋고요. 강릉선교장에 ‘현금보 초’를 나중에 참조해보신다면, 전형철의 이러한 작업이 없었더라면 흑여 남아 있어도 꼭 그 모습이었을 텐데, 다행히 마치 기획된 것처럼 정서가 돼서 너무나 훌륭한 모습으로 지금 남아 있고, 다른 사람이 참조하는 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등록 신청 여부는 국립국악원에는 사실 이 정간보 말고도 정말 보존해야 할 많은 소장품들이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소장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의 10종 정간보는 전형철이 이왕직 아악부에서 제공받은 악보들을 저본으로 하여 전문 필생을 시켜 그대로 전사하게 한 악보들로서 당시 제례악을 제외한 이왕직 아악부의 음악이 망라되어 있고, 또 1938년에 이루어진 이왕직 아악부 편 「비파보」는 이왕직 아악부의 저술로서 당시 이왕직 아악부에서 연주하던 비파 음악이 모두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현재 유실된 옛 아악부 정간보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조선 초기에 군자의 벗으로 칭해져서 거문고를 늘 연주해왔던 분위기와 다

르게 조선 초기에 비파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국음악의 특징이 바뀌면서 비파가 사라졌다가 이왕직 아악부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악보를 남겨놓았다는 사실은 후대에 비파 음악을 전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비파보」로 전형철 제작의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마침내 아악부 정간보의 일습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비파보」에 비춰볼 때 전형철 제작의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정서가 잘 되어 마치 이왕직 아악부에서 보관을 위해 의도적으로 재제작한 것처럼 원본을 능가하는 훌륭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11종의 악보들은 1930년대 이왕직 아악부에서 연주되던 악곡들을 담은 유일한 정간보들로서 이왕직 아악부에서 만들어져 그중 10종은 전형철에 의해 정서된 뒤 다시 원제작자인 이왕직 아악부(현 국립국악원)로 되돌아와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게 되었고, 「비파보」는 이왕직 아악부에서 만들어진 이래 그 후신인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소장되어 온 매우 신뢰할 만한 사료들입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사료가 개인이 아닌, 역사적 국가음악기관인 국립국악원의 소장품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매우 천행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말씀이 다 전달된 것 같아서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前 ○○대학교 교수)

‘전영필’로 오타된 부분이 세 군데 있습니다. 또 ‘11권 11책’인데 ‘12’로 된 곳이 있는데 정정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주무관

지정 명칭을 말씀하셨는데요.

○ ○○○(前 ○○대학교 교수)

그리고 혹시 여기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신청서에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쪽지를 써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쓸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왕직 아악부라

는 것은 대한제국, 소위 황제를 ‘이왕’이라고 폄하시킨 명칭이기 때문에 모욕적이랄까, 굳이 그런 명칭을 그대로 썼고 ‘이왕직 아악부’보다는 그냥 ‘아악부 정간보’라고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청 문화재명을 ‘아악부 정간보’로 수정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면 명칭을 ‘아악부 정간보’로 하는 건가요?

○ ○○○(前 ○○대학교 교수)

‘이왕직’을 빼고 ‘아악부 정간보’로요.

○ ○○○ 위원장

뒤에 ‘비파보’도 있는데요.

○ ○○○(前 ○○대학교 교수)

지금 ‘아악부 정간보’ 내에 ‘가야금보’, ‘거문고보’가 있기 때문에, 전형철이 베낀 것에는 ‘비파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습’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여기에 국가등록 검토 대상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비파로’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악부 정간보’로만 해요? ‘비파도’도 넣어요?

○ ○○○(前 ○○대학교 교수)

예. ‘비파보’까지 넣어야 ‘일습’이 됩니다.

○ ○○○ 위원장

그러니까 ‘이왕직’만 빼다는 말씀이시죠?

○ ○○○(前 ○○대학교 교수)

네.

○ ○○○ 위원장

저는 안 빼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시대 것이기는 해서요.

○ ○○○ 위원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 있었던 기관의 이름이잖아요. 폼하를 했든,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고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왕직 아악부라는 것이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조선이 식민지가 되면서 모든 부분을 사실은 이왕가라는 개념으로 다 격하시켜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었잖아요.

○ ○○○ 위원장

예. '이왕가 미술품 제작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 ○○○ 위원

다 그렇게 했으니깐요.

○ ○○○ 위원장

그게 또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깐요.

○ ○○○ 위원

예, 그렇죠.

○ ○○○ 위원

다른 것들도 '이왕직'이 붙어서 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 ○○○ 위원

그렇죠. '이왕가', '이왕직' 그대로 다 썼으니깐 좋든, 나쁘든, 억울하든, 슬프든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 ○○○ 위원장

그게 딱 시대부터 상징하기는 하니깐요. 선생님께서는 딱 듣고 '아악부'라

고 하면 아시지만 일반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 ○○○(前 ○○대학교 교수)

누대로 '아악부'라는 명칭은 딱 그때만 썼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이미 일제강점기의 명칭이고, 조선왕조 내에는 '장악원'으로 써왔습니다.

○ ○○○ 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의를 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발표자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칭 알고 있는 대로 할 것인지...

○ ○○○ 위원

저는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저도 그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 위원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것이지만 정부에서 통제하고 총괄하는 일인데 이런 말들은 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쓴다면 괄호에 포함해서 한다거나 설명부로 들어가는 게 좋지, 이렇게 앞으로 너무 내세우는 것은 혹시...

○ ○○○ 위원장

그러니까 올라온 대로 '이왕직 아악부'로 하자는 건가요?

○ ○○○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이왕직'을 내세우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특별히 그것이 들어가야만 그 자료의 특성을 다 반영한다면 모르지만, 안 그래도 다 반영되는데 굳이 좋지 않은 말로 쓰는 것, 지금 역사학계에서 '일제시대'를 '일제강점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계속 굳어버렸기 때문에 '일제시대, 일제시대'라고 하듯이 우리 전문가들이 그것을 고쳐주고 수정해나가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속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 위원장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위원

어차피 아악부가 강점기라는 게 확실하니까 앞에 굳이…
앞에 각설해도 될 것 같아요.

○ ○○○ 위원

의견을 다 종합해서 해야 하나까요.

○ ○○○ 위원

제가 독립운동사 등을 쪽 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은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시대나, 일제강점기냐라는 것도 나름대로 통일하고, 그런데 일제강점기니, 일제시대니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만든 용어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역사 속에서, 모든 기록 속에서 이런 기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왕가 미술관이라든가, 이왕직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대로 명칭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모든 것들을… 역사 자체가 슬프고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감추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보여주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다시는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저는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역사학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쓰자, 그렇게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역사적 사실 자체를 우리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용어를 바꾼다, 저는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국가로 이걸 올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비파보’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건은 원안 가결합니다.

이제 문화재청에서 고민하겠지요.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입니다.

(사업관계자 입장)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화계사 천수천안관음변상판, 화계사 탑다라니 판」 보존처리 용역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고요. 사업대상은 「천수천안관음변상판」 1점과 「탑다라니 판」 3점 해서 총 4점입니다. 공사 기간은 120일이고요, 공사비는 2,1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물은 유형문화재로 제387호, 388호이고요. 시대는 19세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관리자는 화계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물 중 가장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천수천안관음변상판」입니다. 유형문화재 제387호로 되어 있고요. 재질은 목판, 형태는 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판이 2개로 나뉘어 있고요, 울거미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지금 적혀 있는 대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이격 등 부분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보시게 되면 부분적으로 결실이 보이고, 이물질이 있고, 또 이 유물은 특이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보수의 흔적, 이 아래에 있는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설주처럼 되어 있는 것이, 중간에 살이 있는 것이 변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실이 부분적으로 있고, 이격이 있고, 이걸 목판 탁본을 하면서 주색과 아교를 발라서 했던 흔적 때문에 여기에 이물질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탑다라니판의 첫 번째이고요. 앞에 있던 것보다 사이즈는 조금 큰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판은 다섯 판으로 나뉘어 있고, 똑같이

목판과 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보시면 이번 것의 경우에는 이격 등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다라니판 같은 경우는 이격이 있는데 이 유물 4개 중에 가장 총해 흔적이 많고, 이렇게 손상도가 심한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 중에서 가장 손상이 심한 유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것입니다. 이것은 울거미판이 6판으로 되어 있고, 앞의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이즈가 앞의 두 점에 비해서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철물이 4개 달려 있고요,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녹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 크기에 차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격이 있고, 이렇게 단청을 칠했을 때인지 안료 같은 것들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철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갈라짐 현상이 있습니다. 떨어지거나 갈라지거나 마모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물인데요. 이 유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로 7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의 경우에도 앞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결실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물질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물을 가지고 왔을 때 벌레가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죽은 사체도 확인할 수 있었고, 갈라짐 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훼손 정도를 보면 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처리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것은 부후의 흔적이 있었고, 세 번째는 갈라짐이라든지 철물 녹이 있었고, 네 번째 것은 충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방식을 써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문의견서를 또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존처리계획입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충이 있고 균이 있는 상태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훈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건식 세척을 할 생각입니다. 충균에 의해서 이물질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오염물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핀셋과 메스를 이용해서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습식입니다. 단청 안료가 묻어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탁본을 했을 때 아교라든지 안료가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닦아내는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할 때 탈이온수라든지, 에틸알코올

을 이용해서 빨리 날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예시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이번 예산에 잡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여서 강화처리라든지 뒷부분은 할 수 없는 것인데, 유물의 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강화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철물을 처리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강화해야 할 부분에는 파라로이드 B-72 등을 이용해서 목재의 상태라든지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복원되어야 할 부분도 있어서 같은 수종이라든지 재질을 분석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사업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되는데 가능해요?

○ 사업관계자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가 훈증과 강화처리, 건식·습식 세척만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기술 자문을 받아서 그것은 시간을 병행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우선은 예산 잡힌 것으로는 두 달로 잡았습니다.

○ ○○○ 위원

탑다라니판은 탁본을 많이 해서 먹과 주목이 완전히 떡이 됐는데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 위원

이건 다 처리하나요?

○ 사업관계자

예. 습식·건식 세척으로 다 제거할 것입니다.

○ ○○○ 위원

먹이 다 제거가 돼요?

- 사업관계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 ○○○ 위원
해도 이쪽에서 탁본을 뜨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사업관계자
예. 이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무슨 확인서를 받아놓든지 해야지,
- ○○○ 위원
탁본을 하더라도 먹이 묻지 않게끔 해야될 것 같아요.
- ○○○ 위원
문화재는 탁본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 ○○○ 위원
그러니까 이물질 등 자체가 다 탁본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들이잖아요.
- ○○○ 위원
그러니까요.
- ○○○ 위원
이 자체를 가지고 보존처리를 한다고 해서 되냐고요. 그리고 훼손되거나
한 부분들이 보존처리를 해야 할 만큼의 상태도 아니잖아요.
- ○○○ 위원
아니,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요.
- ○○○ 위원

그러면 목판을 분리합니까? 판끼리 이음새 붙어있는 것들을 다 분리합니까?

○ 사업관계자

아니요. 분리하지 않습니다.

○ ○○○ 위원

울거미라는 데가 테두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 위원

훈증을 한다고 하셨는데, 훈증 약재를 혹시 보유하고 계세요?

○ 사업관계자

예.

○ ○○○ 위원

지금 약재가 생산이 안 돼서 웬만한 데는 훈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 사업관계자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도 많이 걱정입니다.

○ ○○○ 위원

그리고 강화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물질, 밀로 하실 거예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기술 자문 때 한 번 확인을 더 하겠지만 파라로이드 B-72로 할 생각인데요. 이 유물 같은 경우는 손상도가 심해서 그때 자문을 받았을 때 우레탄 계열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문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심각한 상태이기는 한데, 두 번째 유물이 부후가 많이 심한 상

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 ○○○ 위원

이런 물질을 사용하면 색상이 진하게 변하잖아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 위원

변하는 것도 생각해서, 지금 이 사진만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물을 보기는 했는데 강화처리까지 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깊이 못 봐서 그렇기는 한데, 강화처리 여부는 나중에 자문을 제대로 받아서, 굳이 만져서 부서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 강화 처리해서 색상이 변하는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재 같은 경우 파라로이드 등을 써서 강화처리를 하는 예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수침 목재 같은 경우는 PEG 같은 것으로 하고 고급 알코올 등으로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색상은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자문할 때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업관계자

충분한 테스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이게 작년이었을 텐데, 제가 사전 조사할 때 ○○님과 같이 가서 보았는데 보존처리는 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었거든요.

○ ○○○ 위원

그런데 그 강화처리를 4점 다 하실 거예요?

○ 사업관계자

아닙니다.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것만 그런 상태이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 ○○○ 위원

상태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총해 같은 것은 조금 있는데, 이격 같은 것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때 처리를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보통 강화처리를 하면 보통 5회 정도씩 해요?

○ 사업관계자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앞의 예시도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상태를 봐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건데, 그 예시도는 아주 심각한 상태여서 그랬던 것입니다.

○ ○○○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함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살짝 강화처리제를 발라서 그게 부스러지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이격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해체해서 이격을 줄인다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얘기한 대로 세척하는 정도로 보존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이건 세척 위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 ○○○ 위원

예. 세척은 분명히 필요하고, 훈증이 필요합니다.

○ ○○○ 위원

조건을 달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프린트하지 않는다, 탁본을 뜨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보존처리를 하더라도 또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지나서 또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 ○○○ 위원장

설명 잘 들었어요. 나가 계시면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퇴장)

○ ○○○ 위원

위원장님, 보존이라는 개념 자체를 두고 보았을 때 사용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 그냥 써야죠. 그런데 보존처리까지 다 해서 한다면 보존이 우선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더 이상 탁본을 뜨거나 그들이 예를 들어 포교를 하기 위해서 써먹거나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쓰려면 이것 자체를 쓰지 말고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서 프린트해서 써라.” 그런 조건을 달고 보존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사실 탁본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위원

맞습니다. 문화재는 승인받아야 합니다.

○ ○○○ 팀장

해야 되는데 그게 자치구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달아서 내려보내면 심의가 올라올 때 자치구에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보존처리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마음대로 막 찍어대요?

○ ○○○ 팀장

그것은 자치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아주시면 심의할 때...

○ ○○○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 위원

자치구 위원회가 있어도 그냥 막 찍어낸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 ○○○ 위원

계속되는 문제인데 보존처리를 해 봐야...

○ ○○○ 위원

예를 들어 10장을 찍는다고 해 놓고 1,000장을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례들을 봤으니까요.

○ ○○○ 위원

예.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그날도 보니까 사측에서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건물 밑에 갖다 놔다든지, 보일러실 같은 데 갖다 놓고 해서 불화이고 목판이고 간에 그냥 뭐...

○ ○○○ 위원

보통 우리 같으면 이런 것을 하면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이걸 지키고 보존했냐?” 그 점수가 들어가고, 거기에 상응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겠다.”라고 해야지, 아무렇게나 놔두고 허구한 날 우리가 이 돈 다 들여서 고쳐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 ○○○ 위원

지금 계속 문제예요. 어디나 문제가 되잖아요. 탕화 같은 것도 관리를 잘 못해서 구멍이 뺨 뚫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 ○○○ 위원

제가 여기서 쭉 몇 년 동안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돈은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똑같은 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부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죠.

○ ○○○ 위원

법적으로 사후 처리에 관련된 뭔가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보존처리를 못하게, 만일 그때 심각한 상황이 나오면 사측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뭘 하는 그런 조항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아주 호구처럼...

○ ○○○ 위원장

그건 서울시 팀에서 내규처럼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팀장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면 어차피 보수나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만약 탁본을 자제하라든지, 탁본을 금지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주시면 그 이후에…

○ ○○○ 위원

탁본 자제가 아니라 금지해야죠.

○ ○○○ 위원장

보존처리를 한 후 탁본 금지. 하려면 모각해서 해라.

○ ○○○ 위원

모각이 아니고, 요즘은 3D로 잘 촬영하면 거의 탁본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잘 나오니까요.

○ ○○○ 위원

예. 잘 촬영하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어요.

○ ○○○ 위원

예. 이제는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죠.

○ ○○○ 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보존처리가 끝나면 탁본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게 좋겠죠?

(“예.” 하는 위원들 있음)

○ ○○○ 위원

그리고 보존처리 후에는 검수 내지는 무슨 조건 같은 것 없나요? 만일 보존처리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보존처리한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위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 ○○○ 위원

그것에 대한 무슨 규정 같은 것을 시에서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위원

보존처리 과정 중에 자문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 ○○○ 위원

그런데 저도 보존처리 자문을 나가보면 끝나기 전에 가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 ○○○ 위원

그러니까요. 검수가 문제예요.

○ ○○○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는데, 그다음에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지, 위원회에는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요.

○ ○○○ 팀장

그러면 조건을 ‘최종 검수 시 서울시 문화재전문위원이 검수할 수 있도록 하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검수할 때, 최종 완료할 때…

○ ○○○ 위원

검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 ○○○ 팀장

‘문화재전문위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추가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하

시면...

○ ○○○ 위원

당연히 발주처에서 마지막 검수에 사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전문위원이든지 아니면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내보낸다거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검수를 할 때 같이 검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관련 전문가’로 하면 되기는 하는데요.

○ ○○○ 팀장

예. 보통 용역에는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위원

그래서 최종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그게 자문회의 맨 끝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 ○○○ 위원

예.

○ ○○○ 위원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난 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 ○○○ 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건 ‘화계사 천수천안관음변상판’과 ‘화계사 탑다라니판’ 이 2건은 원안 가결합니다.

대신 단서가 있어요. 단서는 ‘보존처리가 끝나면 다시 인쇄하지 않는다.’입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건 중 네 번째 ‘청자 상감동화 모란 당초문 매병’부터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청자 상감동화 모란당초문 매병’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반구형의 구연을 가진 전형적인 매병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흑상감과 백상감, 상감 기법을 베이스로 하고, 모란꽃이 있는 부분 위에 동체를 살짝 곁들인 상태입니다. 상감에 동화 혹은 동채까지 곁들인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고, 고려에서도 상당히 귀한 편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쪽 아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면으로 쪼개진 것들을 금으로 때우는 방식, 약간 일본풍의 그런 방식으로 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9쪽의 자세한 사진을 보시면 상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동채가 벗겨진, 혹은 동채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 윗부분에 유면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탈락이 되어 있거나 벗겨진 상태이고, 또 누렇게 다 변색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법 자체는 귀한 경우이지만 보기에는 상당히 양호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대략 13세기경에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30쪽 도7에 보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고요. 매우 드물지만 유적에서도 인천 지역에서 편으로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동채 혹은 동화를 곁들이는 방식은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고요. 동이라는 재료가 환원됐을 때 붉은 색을 띄게 되고, 그 붉은 색 자체가 고려에서는 일정한 신분적 위계와 연관 있는 색으로 추정되는데, 그래서인지 전라도 강진이나 전북의 부안 지역에서만 지금까지는 발견되고 있어서 자체는 귀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부에서 구연부 동체 전반에 걸쳐 수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절반 가까이는 다 복원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화기법을 사용한 부분도 붉은 색 발색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 벗겨지거나 고르지

않은 상태이고요. 특히 유약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하면서 뭉쳐있거나 그래서 색깔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매병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님께서 과학적 조사를 하셨습니다.

○ ○○○ 위원

CT 찍은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구연부에 물론 사진으로는 명확하게 보이기 는 한데 이렇게 복원한 흔적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복원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표면에 넓게 금칠한 곳이 동체를 구울 때 결함부죠. 조금 패여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매운 상태이고, 지금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의 파손된 것을 접합한 다음에 금분 수리한 것이어서 지정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결론적으로 동화는 상당히 귀하지만 너무나 많이 파손된 것을 이어 붙였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재로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청자 상감동화 모란당초문 매병’은 원안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자 음각 유로수금문 정병’입니다.

○ ○○○ 위원

37쪽을 보시겠습니다.

전형적인 매병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판대가 있고, 또 천대도 있고, 동체가 있고, 주구가 다 갖춰진, 또 뚜껑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동체는 유로수금문, 갈대하고 물오리, 물새 같은 것들이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양의 디테일이 38쪽을 보시면 잘못 그렸다, 굉장히 어색하고 솜씨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접지면 전체를 보시면 굽 접지면 같은 경우도 일그러져 있고, 동체도 성형 자체가 아주 고른 편은 아니어서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고, 또 전체 전면에 균열이 상당히 많아서 문양이 잘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매병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39쪽 위쪽을 보시면 서공의 「선화봉 사고려도경」에는 일단 ‘정병’이라는 항목이 등장하고 있고, 상층 계층에서 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중국의 경우는 탑 안에 탑기라든가 이런 데서도 발견돼서 불단에 공양수 등 정도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에서 ‘은입사정병’이라든가 여러 재질, 도기로도 만들어지고, 철화 기법을 사용한 것, 청자로 된 것, 그리고 도8번을 보시면 물을 담는 수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어깨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약간 침 담그는 식으로 물속에 쪽 넣었다가 물을 안에 담그고 물을 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대상이 되는 것은 전형적인 형태의 정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래 원형은 잘 유지하고 있지만 전면에 균열이 상당히 많고, 문양의 수준도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시적 효과도 매우 낮다고 보이고요. 지금 현존하는 매병들 중에는 준수한 사례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을 연결하는 부분과 환대 일부,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가늘기 때문에 붙는 과정에서 건조할 때 정병들은 살짝 틀어지거든요. 물레 방향으로 살짝 틀어지는데, 그런 이유로 아마 조금 일그러진 것 같이 보입니다. 등등의 이유로 해서 지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

시대는 고려시대 것이 맞나요?

○ ○○○ 위원

예. 고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사자의 의견을 따를까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청자 음각 유로수금문 정병’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을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자 양인각 연지동자문 완’입니다.

○ ○○○ 위원

41쪽을 보시면 원형을 보실 수 있고요. ‘양인각’이라고 하는 것은 문양이 다 새겨진 틀을 만들고 그것을 구워요. 단단한 상태의 틀인데 내면의 형태죠. 그릇을 얹어놓고 새로 물레로 성형한 것을 조금 마른 상태에서 덮어서 누릅니다. 그 압력으로 딱 붙었다가 약간 마른 뒤에 떼어 내면 그 사이에 문양이 딱 찍혀 나와서 ‘양인각’ 또는 ‘압출양각’ 등 용어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를 보면 굽이 상당히 작고 옆면 측선이 사선으로 짝 벌어진 상태이고, 안에 굽보다 약간 작은,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원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원각들은 보통 물레로 성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헤라’라고 해서 목갈 같은 것으로 내면을 다듬을 때 형을 잡으면서 쓰는 기구들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 경우도 아마 그렇게 된 것을 다시 틀에 눌러 찍어서 굉장히 규격화된 모양을 뽑아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디테일들이 남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연부 몇 군데를 제외하면 거의 완형에 가깝고, 도6에 보면 조사대상에 도면화시킨 것인데 문양들이 압출 부조의 상태가 고부조로 문양을 뚜렷하게 알아보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놓고 있는 어린이들, 또 원앙 등이 있어서 전형적인 연지동자 주제의 회화적인 화풍의 문양들을 압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유사한 것들은 강진 사당리에 파편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도7번, 그다음에 8-1 등 남아 있는 유물들을 보시면 현존하는 다른 유물과 크기라든가 내면 문양 등이 매우 흡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해보았을 때 현재 이 조사대상이 훨씬 유색의 상태나 보존 상태나 또 문양의 정도 등이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일부 살짝 뒷부분 등이 노출되거나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존하는 유물들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 결과 ‘청자 양인각 연지동자문 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고려시대 약 12세기 중반 언저리로 보입니다. 이때 제작된 다양한 완들 중에 유색이나 번조 상태, 또 문양 상태 등이 우수하고요. 구연부에 아주 작게 세 부분 정도 살짝 떨어져 나간 부분을 수리한 것이 있지만 이게 원형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형태와 크기, 장식이 매우 조화롭고 양인각의 상태가 완성도가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해서 현존하는 것들 중에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물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전형적인 12세기 것이고, 부조도 상당히 좋네요. 찍었는데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나왔어요.

○ ○○○ 위원

이렇게 또렷이 골고루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 위원장

네. 동자 모양이나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금성문화재단 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 ○○○ 위원

예. 여기에서 소장자 고 김낙준 초대 이사장이 보니까 많은 것을 수집해서 공유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들 대에 와서 이걸 신청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위원장

그분이 물건을 소장하실 때는 유명한 분들이 다 일단 한 번 보시고 한 거죠?

○ ○○○ 위원

네. 그리고 본사가 마포구에 있는데 가보니까 사옥 아래에 조그맣게 아예 시민들을 위한 전시실을 개방해서 전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 ○○○ 위원장

전시실도 있어요? 네.

별 질의가 없으시면 조사자의 의견대로 ‘청자 양인각 연지동자문 완’은 원 안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자 상감 모란문 주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 위원

보시다시피 ‘주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주전자’라고 부르는 것인데, 도자기 재질의 것은 반드시 불 위에, 화로에 올렸던 것인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통상적으로 그냥 물을 따른다는 기능에 집중해서 명칭을 ‘주자’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동체가 거의 구형에 가깝고, 또 거기에 맞는 연잎을 얹은 것 같은 형태의 뚜껑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와 주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 꼭지 부분에 이파리가 있는데 그 사이가 떠서 아마 거기에 실을 끼우면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 부분으로 실이나 물질을 연결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분실하지 않도록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전면에 요즘에는 우리가 ‘칠보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문양들, 여러 개의 원을 서너 부분 겹치게 배치하는 문양에 대해서는 북송대 영조법식에 보면 건축 부재 부분에 여러 가지 명칭들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문양은 전반적으로 중국에서부터 유래한 문양으로 추정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끼가 받치고 있는 투각칠보향로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것, 그 위 맨 꼭대기 부분에 정상부 계주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문양입니다. 그것들을 전면에 새기고 그 사이사이의 구간에다가 모란이라고 이런 꽃들을 전부 흑백상감으로 배치하고, 그다음에 동그란 경계들을 다시 흑백 선으로 연결해서 문양 자체는 매우 귀하고 또 상당히 나쁘지 않은 보기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형태가 49쪽에 보시면 문양의 종류는 다르지만 브루클린박물관이나 또 삼성 리움에 가지고 있는 것들과 구조가 유사하다, 그래서 이것 역시 12세기 중후반 정도에는 제작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동체가 한쪽은 약간 비색을 띄고, 절반 가까운 부분은 약간 누렇게 발색되어 있어서 번조 과정에서 산화환원의 조절, 환원이 잘 안 걸렸던, 그러니까 제대로 환원하

지 못하고 끝난 상태여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보았을 때보다 실물을 딱 보면 뚜껑부가 색이 좀 달라요. 뚜껑부의 색깔이 조금 다르고, 전체적으로 유약의 상태 등이 고르지 못하고 두께가 울퉁불퉁하다든가 굉장히 탁해서, 사실은 상감청자가 전성을 이루는 시기는 유약이 되게 투명해야 문양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양들이 투명하지 않고, 그래서 문양을 덮는, 약간 필터를 씌운 것 같은 느낌이 탁하게 보이고, 빙렬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따르는 주구 부분 앞부분이 부분적으로 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태도 귀하고 문양도 희귀하지만 전반적인 완성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썩 아름답다거나 하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 상태여서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이게 칠보문 중의 전문 아니에요? 엽전?

○ ○○○ 위원

영조 법식에 보면 전혀 다른 고유의 이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문양과 배치되느냐에 따라 네다섯 가지의 이름이 영조법식에 아예 딱 정확하게 명칭이 등장하거든요.

○ ○○○ 위원장

그런데 상감을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노력을 많이 한 건데, 발색은 좀 달라요.

○ ○○○ 위원

예. 발색이 조금 애매하고, 뚜껑 부분이 또 조금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 ○○○ 위원

뚜껑이 원래 제짝인지, 나중에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 위원

거기에서도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이 문양의 조합이 위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구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문양의 종류가 동체와 조금 달라요. 그런데 뚜껑은 동시대에도 비슷한, 없어도 다른 것을 갖다가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을 막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지정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 ○○○ 위원장

조사자께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 ○○○ 위원

뚜껑에 잎맥 같은 표현이라든지, 뚜껑의 가장자리에 거침처럼 된 게 좀 뭉툭한 느낌, 그런 게 보여요.

○ ○○○ 위원

예. 뭔가가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2번에도 보면 손잡이에 잎맥 같은 것을 표현한 게 있는데, 상감임에도 불구하고 문양들이 다 거칠고 솜씨가 떨어지긴 해서 오른쪽에 비교한 클리블랜드와 삼성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 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청자 상감 모란문 주자’는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자 음각 연화절지문 병’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 위원

52쪽에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병, 구연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팔구장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크게 보면 그냥 전형적인 병입니다.

위가 벌어지고 아래가 약간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고, 동체의 앞뒷면에 4개의 음각문들이 그려져 있어서 연화문, 모란문 등 서로 다른 모양으로 조합된 상태의 문양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것에 의미를 좀 두자면, 굽

부분에 보시면 도1-3과 1-4에 있는데 ‘의장’이라고 하는,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 도자사 쪽에서는 이게 아마 승려의 이름이 아닐까라고 추정되기도 하고, 인명으로 보이는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명문에 있는 이름은 부안 유천리, 54쪽 중간 아래쪽을 보시면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유천리 출토 파편들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도 의장명 파편이 있어서 아마 이 병도 원산지가 유천리 쪽이 아닐까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점들을 갖추고 있기는 한데, 막상 실물을 보면 도4, 5-1, 5-2 부분의 사진에서 확인되듯이 상당히 큰 크랙들이 있고, 이것을 약간 땀질한 것 같은 흔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연부 일부는 새로 만들어서 수리해 붙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목 부분부터 구연까지, 그리고 동체 여러 부분, 그래서 경부와 동체 하부의 파손이 상당히 심한 편이고, 구연 일부는 아예 복원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약간 오염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동체 부분에는 수직으로 뭇가로 막 긁었거나 값아낸 것 같은 마모흔도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팔구장경병’은 용도상 술을 담았거나 또는 주병, 그래서 아마 주병의 용도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보통 중국에서 명나라 이후에는 보통 이렇게 생긴 병을 ‘옥호춘’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는 하는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천리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현재 유물 자체에 물질적으로 많은 파손과 수리 후 복원, 또 여러 개의 굵은 흔적, 오염 등으로 인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

사진만 봐서는 보존처리가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요.

○ ○○○ 위원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보았을 때는 “아~” 이랬는데, 저희가 요즘에는 UV라이트로 다 확인하니까 붙인 자국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조사자의 의견대로 ‘청자 음각 연화절지문 병’은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자 상감 매죽학문 매병’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 위원

역시 매병이고, 구연부가 약간 반구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29.5cm라서 현존하는 고려 매병 중에는 중형 정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체 전체에 매죽 그리고 학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58쪽 도3을 보시면 대나무와 매화 사이에 학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저희도 사진 상으로 딱 보았을 때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고 접했던 유물이었습니다. 58쪽 윗 문단, 아래 문단을 보시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파손 흔적들과 넓게 크랙이라든지 붙인 흔적, 그리고 수리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면에 아마 그런 것을 굽다 보면 기포가 생기거나 유약이 뭉치고, 혹은 대티라고 해서 까만 점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갈아내서 평탄하게 메운 느낌이 살짝 듭니다.

최근에 저희가 매병에 편년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할 때는 59쪽에 보시면 2010년 태안 앞바다에서는 ‘마도 2호선’이라는 곳에서 도6과 같은 매병이 2점 같이 발굴된 적이 있고, 그 매병에는 목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죽살, 죽간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에는 참기름, 하나에는 꿀을 담는다는 명문이 아예 새겨져 있었고, 윗 단락 중간쯤에 보시면 거기에 아예 ‘어디 어디에 담는다’라고 해서, 어디에 담느냐면 ‘준’이라는 명칭, 그래서 ‘주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긴 것을 ‘매병’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중국에서 온 이름이고, 고려시대에 아마 ‘준’이라는 명칭으로 썼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래서 현재 고려 후기 유물 중에는 사선, 덕천, 사온 등의 명문이 도자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술과 연관된 용도였을 것이라고 보지만, 고려에서는 술 외에도 뭔가 액체로 된 물질들을 담을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문양들이 아주 흔하지 않고, 대나무나 학이 있고, 회화적인, 이게 송나라 때 많이 사용되던 도안들인데요. 이런 게 사용된 점은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파손과 수리들이 여러 군데 이루어졌

고, 갈아낸 흔적들이나, 그다음에 태토가 아예 좋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절정기의 상감들은 상감을 하려면 작은 가는 칼로 문양 아우트라인을 하고 새겨 넣어야 하기 때문에 태토 수비가 일단 잘 돼야 그 선들이 굉장히 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태토 자체가 그렇게 곱지 않은 흙을 사용하고 있어서 선들이 자세히 보면 거친 편이라고 생각되고, 유층이 얇고, 유색도 고운 비색이라기보다는 회색을 강하게 띄는 것들이 있어서 현존하는 상감문 매병들 중에는 준수하지 않다, 그렇게 좋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문양은 상당히 좋은데요.

○ ○○○ 위원

그런데 실제 보시면 여기 도7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매죽학문 매병>, 비슷한 문양이 있거든요. 저희는 사진으로는 이걸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물을 보면 매우 다르고, 굉장히 거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지는 않아요.

○ ○○○ 위원

그림이 대나무가 아주 크네요.

○ ○○○ 위원

예. 전체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청자 상감 매죽학문 매병’은 조사자의 의견대로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건 중 두 번째 ‘홍영식 복명문답기’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 위원

‘홍영식 복명문답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흔히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이 1883년도에 갔을 때, 정사 민영익과 부사 홍영식이 갔는데 정사와 부사가 노선이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홍영식은 개화파 쪽이었고, 민영익은 그 반대쪽,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가서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빙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모 관대 차림으로 관복을 입고 그때 당시 아서 대통령을 만나서 문 밖에서 큰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서 대통령이 크게 놀라서 허리를 숙여서 답례를 하고, 나중에 다시 악수를 하고, 그게 그때 당시 미국에 굉장한 이슈가 됐던 건데요. 그 두 사람의 복명기인데, 이 복명기는 마지막 결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영식은 1884년 갑신정변을 주도한 개화당 지도자의 한 사람인데, 이 ‘복명문답기’는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개화당 세력의 문명관과 미국관, 시국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하고요. 보존처리를 하기도 했는데 중간 중간에 뚫린 부분도 좀 있고, 아래쪽에 글씨가 안 읽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러한 단자 형태로 실제 왕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한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중요하지만, ‘홍영식 복명문답기’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승정원일기 등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자체로 두고 보았을 때는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그때 조사를 했었습니다.

○ ○○○ 위원장

예.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 위원

기록한 주체는 누구예요?

○ ○○○ 위원

홍영식이 직접 쓴 겁니다. 직접 써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그러면 서체를 비교할 수 있지 않나요?

○ ○○○ 위원

거기까지는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고요.

○ ○○○ 위원

소장 경위가 청계천 고서점 입수로 되어 있는데 그럴수록 그 부분 같은 게... 정황상 홍영식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홍영식의 필적이 남아 있을 텐데요.

○ ○○○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선생이라고 단국대에 계셨던 사학자 분이 여러 편의 논문을 쓰셨습니다. 이게 홍영식 복명기가 맞다고 했고, 그 내용과 내용의 일부도 이야기하고, 사실 그 논문을 근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 ○○○ 위원

예, 알겠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조사자의 의견대로 국가 등록문화재로 올리는 것을 가결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봉 3타)

다음은 ‘서간도 시종기’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 위원

제가 3건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간도 시종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회영의 후처가 되는 이은숙 여사가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쓴 것

으로 지금까지 밝혀져 있고요. 사실 이은숙 여사는 1912년도에 마적단의 침입을 받아서 어깨에 총상을 입은 적도 있고, 1966년도에 이은숙 여사가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1966년도에 작성한 것이지만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조사를 했는데요.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144페이지를 보시면 그다음에 나오는 「우당 이회영 실기」가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 실기」는 언제 작성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관직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회영과 일부 부분에서 같이 활동했던 것도 있고, 내용 자체가 대부분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고, 여기서 50회 정도까지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자체를 보니까 어떤 기록을 찾았거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증명하거나 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도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뒤에 남은 동지들이 모여서 상의해서 선생님의 훌륭한 발자취를 간단하게 적어본다.’라는 식으로 한 부분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수기라든가 이런 것과는 개념이 다르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해서 「우당 이회영 실기」는 사실적으로 지정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148쪽 「우당 이회영 약전」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관 이정규 선생인데, 이분은 성균관대 총장도 하고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사실 노동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분이고, 일제강점기에도 그런 활동을 했던 분인데요. 내용을 보면, 149페이지에 제가 사실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부가 설명을 했던 정도이고, 149페이지에 보면 제가 목차들을 쪽 적어놓았어요. 1기, 2기, 3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회영 약전」은 앞에 ‘실기’ 부분에서 제3기가 플러스된 상태입니다. 앞부분은 150페이지에 보시듯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확실하게 증명을 했다거나 하는 것이 없고, 집필 방법은 똑같은데요.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1974년도에 본인이 회혼례 기념으로 <우관문존>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이 3백 몇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꽤 많은 분량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기’라는 것 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다 못 썼는데 ‘시종기’도 다시 한 번 보아야겠다, 이 3개의 글들이 서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상호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74년도에 이 책을 썼으면,

우관 이정규 선생이 1974년도에 출판할 정도이면 1960년대 정도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관직이 썼던 '실기'도 그 정도 시기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됐습니다. '시종기' 자체를 조사할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고민이 좀 된다는 것입니다.

○ ○○○ 위원장

3번부터 9번까지는 전부 이회영기념관에서 일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도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건데, 결과가 '서간도 시종기'만 국가 등록 문화재로 올릴 만하다, 나머지는 인장이고, 인장함이고, 전부 미흡하다는 의견이었어요. 이것을 한 군데서 일괄 한 사람에게 관련된 문화재로 올린 건데, 우리가 다 따로 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종기'만 떼어서 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는데, 지금 ○○○ 위원님께서 '시종기'도 다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묵란'은 ○○○ 위원님께서 조사하셨는데 '보류'로 하셨어요. 이걸 일괄로 하는 게 나올까요?

○ ○○○ 위원

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회영 친필 편지 봉투'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이회영 친필 편지 봉투'까지 해서 일괄로 할까요, 아니면 날개로 할까요?

○ ○○○ 위원

일단 날개로 조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봉투'는 사진을 한 번 보여주시죠. 사진에 보시면 그때 당시 상하이에 있었고, 내용 중에 보면 이현숙이라는 분은 다섯째 딸입니다. 그다음에 상해시에서 쪽 내려가서 끝에 보면 '이수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은 이회영의 넷째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여서 같이 다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회영의 이름이라든가, 부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아이들 이름으로 보낸 것

같고, 재질은 아마 명주로 되어 있고요. 끝부분에 박음질이 되어 있고, 제일 위쪽에 보면 실이 남아 있습니다. 무명실 같은 게 남아 있는데 아마 그걸로 꿰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걸 도대체 언제 보낸 것이냐라고 논란이 많았는데, 1919년 당시에 이회영은 이미 상해를 떠났다고 이야기되는, 초기에 상해 임정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피해서 가버린 사람이니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1919년 3월 31일 밑에 있는 우편 확인과 그다음에 우표에 찍혀 있는 우편 일부인을 뒤에서 조명을 비추고 하니까 1919년 3월 31일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서 1919년 3월 31일에 사실은 우당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돼서 우당의 행적에 대한 부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건수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때 당시 우편제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렇지만 형식 자체가 그림을 넣기 위해서 그림을 보자기로 썼다는 개념이고, 바깥에 주소를 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지정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건씩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누어 놓았으니까 ‘서간도 시종기’에 대해서 조사자께서 처음에는 ‘가’라고 했는데, 원안 부결인가요?

○ ○○○ 위원

다시 한 번 보자는 겁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서간도 시종기’는 국가로 올리는 건데 보류가 아니고 부결 아닌가요?

○ ○○○ 위원

전체로 따져서 여기서 결정하시죠.

○ ○○○ 위원장

예.

그러면 ○○○ 위원님께서 묵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 위원

앞의 봉투에서도 ‘畫本八幅(화본팔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구전되는 내용이 이회영이라는 독립운동가가 목란을 잘 그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독립자금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에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계속하고 소장처나 아니면 유족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서로 인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회영이 목란을 가지고 독립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이 애초에 어디에서 근거되었는지를 저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림 자체를 살펴보았는데 전체가 5점 그림이고요. 그것이 족자 형태가 3개, 액자로 변형된 게 1개, 그다음에 선면 액자로 된 게 하나로 이렇게 5건이 있고, 주제는 다 목란이었습니다. 각각의 작품마다 거기에 제발과 낙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유래를 저희가 판단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생이었던 이시영이 거기에 글씨를 써놓았고요. 그 글의 내용에 의하면 조카인 규학 즉, 이회영의 아들이죠. 이규학이 이 작품을 가지고 와서 글을 써달라고 해서 써준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이회영이 사망한 이후인 해방 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역시 이회영의 목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제자의 제자뻘쯤 되는 유치웅이라는 분이 여기에 제발을 썼어요. 그건 1976년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후대의 기록이고요. 세 번째 작품은 정인보 선생이 1945년에 이 작품을 보고 긴 제발을 썼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이회영을 모시던 이정연이라는 인물이 이 작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회영이 죽은 한참 후인 1949년에 이 글이 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족자는 오세창 선생이 역시 썼고요. 아까도 나왔던 이관직이라는 분이 이 작품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 후에 또 서예가인 정태석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글씨를 써놓았고요. 또 보고서에는 빠졌는데 ‘우관’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 우관은 방금 전에 나왔던 이정규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다 이회영과 관련이 있지만 이회영이 죽은 후에 다 쓰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작품이 유일하게 이회영이 직접 글을 쓰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작품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나 보았더니 지인이었던 유봉영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 인연으로 이 부

채 그림을 주었고, 그것이 그 집안에서 계속 내려와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결국 다섯 번째 선면 작품을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이회영이 그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전언에 따르면 독립운동을 할 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했다고 해서 일부러 이름을 안 쓰고 그렇게 알음 알음 구전으로 유통시켰다고 이해하면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술품으로서 예술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는 흥선대원권 이하응의 묵란을 계승했다고 알려져 있었고, 화풍으로 봐서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예술적으로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 이회영의 진작이라고 저희가 다 가정을 한다면 문화사적이나 역사적인 가치는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안중근의 유묵 같은 경우를 예술적인 가치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앞에 4점 같은 경우는 그게 과연 이회영의 작품인지 저희가 현재로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회영의 묵란 자체가 현재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그림을 당시 식민지 조선으로 보냈다고 하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진위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류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위원장

그러니까 4점은 이하응의 풍이지만 진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다섯 번째 선면도는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전체적으로는 부결이고요.

그다음 건으로 '이회영 필묵함·인장함·문진'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 위원

나무 필묵함 1점과 종이로 만든 인장함 2점인데요. 이 유물 3점도 마찬가지로 ○○○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만들어서 썼다고 하고, 아까 묵란도 독립자금을 대기 위하여 묵란도를 만들어서 유통시킬 때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고, 집안에서 그렇게 말로 전해지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유물들은 일제강점기 즈음 근대기에 많이 쓰던 일반적인 양식이고요. 만들기도 힘들지 않지만, 개인이 만들 수도 있지만 굳이 이회영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썼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나무함은 그대로 니스 칠까지 되어 있고, 뚜껑 안팎에 장자 글귀도 썼지만 사용한 흔적도 있고요. 철모도 쓰였기 때문에 시기도 이분이 활동하던 10년대에서 30년대까지 그 사이이겠지만 그것도 아주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장 같은 경우는 후지 기법이라고 해서 종이를 중첩해서 두겹게 후지판을 만든 다음에 기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종이를 덧씌워서 장식을 하고요. 칠을 하거나 종이를 붙여서 장식을 하는 것인데, 2개가 다 같은 기법인데 약간 색깔이나 아니면 문장 등만 다르고, 크기도 가로 제일 긴 장축이 9.5cm 정도이고, 높이도 4.5~7.5cm로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안에 뒤에 애기가 되는 인장이 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인주 등이 묻어있고, 종어도 탈락되고, 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큰 것, 작은 것을 따진다면 큰 것에는 좀먹은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원형은 알 수 있으니까 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본다면 그런 훼손된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회영이 직접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고요. 그 밑에 문진도 질 좋은 옥은 아니고 옥석, 납석,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무른 옥석 돌인데, 문양이 아주 정밀하게 가공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본인이 스스로 깎았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쓰지 않았나, 쓰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시대도 근대이고, 활동하던 시기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것만 보았을 때 역사적인 문화 재로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술적이라거나 또는 조형적이라거나 해서 공예적인 가치, 또는 민속품의 가치 등을 봐서는 이것 단독으로는 지정 불가하다고 보고, 제가 거기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이회영의 유물 전체를 일괄로 해서 만약 등록한다면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 단독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다음은 이것과 관련된 ‘이회영 인장’ 건인데, 간사께서 읽어주십시오.

○ ○○○ 주무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회영 인장 11과는 제작기법과 인재 등을 볼

때 전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회영 글씨가 서각되어 있는 인함에 보관되었다는 점, 실제 작품에서 날인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이회영이 직접 소장하고 사용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회영 자체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 유물들의 등록 여부를 이회영 인장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나 좀 더 다양한 날인 사례가 확인된 이후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 ○○○ 위원

제가 조사자는 아닌데요. 보니까 ‘보소당인존’ 도장을 많이 모각했는데 모각의 수준은 많이 떨어집니다.

○ ○○○ 위원장

그러면 국가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건 이회영 관련 ‘서간도 시종기’, ‘우당 이회영 실기’, ‘우당 이회영 약전’, ‘이회영 친필 편지 봉투’, ‘이회영 묵란’, ‘이회영 필묵함·인장함·문진’, ‘이회영 인장’ 건은 일괄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등록문화재의 마지막 ‘신흥사 수월관음도’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 ○○○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했는데 이걸 유형문화재로 지정 신청했는데 또 국가 등록문화재로 신청이 와서요. 보고서에 같이 갔던 ○○○ 선생님께서 자세히 썼습니다. 완전히 그림 자체의 도상은 고려불화 도상을 그대로 모사한 건데, 명문은 또 광서 년간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썼던 화승도 연대 차이가 많이 나고, 보니까 바탕질을 옛날처럼 한 게 아니라 시접을 이만큼 두껍게 이어서 한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면, 또 그림 그린 것, 또 명문을 쓴 것, 또 화기 위에 번쩍번쩍 하게 해 놓은 것 등,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똑같은 것을 자꾸 올려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백만 원 주고 화봉문고에서 샀다고 하는데 화봉도 돌아가시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 ○○○ 위원장

1990년대에 이 ‘수월관음도’가 많이 들어왔어요. 9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이게 먼저이고, 그다음에는 고려 금속공예, 그게 흐름이 있어요.

○ ○○○ 위원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 조잡하고요.

○ ○○○ 위원장

‘신흥사 수월관음도’ 건은 원안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 ○○○ 위원장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건은 마쳤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건 4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고기간 중에 이의가 없었지요?

○ ○○○ 주무관

예. ‘진법언해’ 등 5건이고요. 저희가 3월 17일 2차 동산분과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 ‘가’로 의결된 5건에 대해서 예고를 서울시보에 했고, 현재까지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정 의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첫 번째 ‘진법언해’는 서울시 문화재로 원안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번째 ‘불설예수시왕생칠경’도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삼도합도’ 역시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역시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통감 권252~254’도 원안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서울시 지정 심의 건은 끝났고요.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건 첫 번째 ‘법화영험전’입니다.

○ ○○○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영험전’은 잘 아시다시피 천태종 승려로 알려진 ‘요원’이라는 고려 승려가 법화경 영험담만을 뽑아서 법화경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독송이나 필사, 강설하는 여러 가지 영험들을 우리나라와 중국의 여러 경전과 논서에서 찾아 엮은 책입니다. 이 안에 당나라 혜상의 ‘홍찬법화전’이나 종효의 ‘현응록’, 진정국사의 ‘해동전흥록’ 등의 책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알려지지 않은 책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귀중한 문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사대상 본이 황해도 수안이라는 곳의 대청산 중암에서 간행한 것으로 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기의 연대가 안 나와 있거든요. 14페이지 그림의 간기 부분을 잠깐 보시면 ‘大靑山中庵開板 化主 云熙’라고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연도 등을 확정할 수 없었는데, 그 밑에 잠깐 참고자료를 보시면 ‘전남 유형문화재 묘법연화경 간기’ 부분에 대청산 중암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이 있습니다. 그게 1564년이거든요. 64년이고, 66년에도 「현수제승법수」와 같이 간행되었습니다. 이때 주도한 인물이 ‘윤희’라는 승려인 것 같고요. 특히 간기에 들어있는 각수 중에, 여러 각수들이 있는데 수연, 신연, 축령, 이 세 사람의 각수가 ‘법화영험전’에 각수 표시가 되어 있는 판심에 “玲”, “信”, “守”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뒷

페이지에 보면 간기 부분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법화경 100건, 영험전 30건, 지장경 20건 등등해서 1565년 8월에 이걸 작성하고 운희가 했다는 것을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565년 8월 이전에 대청산 중암, 황해도 수안입니다. 거기에서 화주 운희 주도로 간행된 불서 1종이다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게 얼마나 남아 있느냐? 현재 제일 이른 시기 것은 1534년 고창 문수사 본입니다. 그것보다 바로 뒤의 것이 1544년 함경도 안변 석왕사 본인데, 조금 이른 건데 근래에 서울시 유형문화재가 됐고요. 그리고 그 뒤 것이 1652년 것인데, 현재 이 책은 남아 있는 것이 ○○대와 일본 동양문고 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1565년경에 판각된 책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충분히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감사합니다.

영험 설화들을 쪽 집대성한 것이지요?

○ ○○○ 위원

예.

○ ○○○ 위원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각수가 또 세 사람 이름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 ○○○ 위원

예. 판심 부분에 각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서 아주 절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위원장

별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법화영험전’은 조사자의 의견대로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두 번째로 ‘정암사 석조석가여래좌상’입니다.

임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 ○○○(○○대학교 교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상에는 복장발원문하고 전적이 좀 있습니다. 전적은 ○○○ 위원님께서 조사해 주셨고요. 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은 1702년에 ‘수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각승께서 만든 작품이고요. 복장조성기에 의하면 수일 스님과 함께 열두 분의 조각승의 이름이 나오고, 이어서 편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열네 분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조성기에 의하면 ‘과거칠불(過去七佛) 및 오십삼불을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모두 60분을 만든 거죠. 그런데 과거칠불은 좀 크게 만들고 오십삼불은 작게 만든 건데, 일단 과거칠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칠불 중에 지금 정암사에 있는 이 상은 일곱 번째 석가모니 불상이라고 조성기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서 이걸 의심할 여지없이 일곱 번째 상이고요. (과거칠불 중) 현재 세 구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제3상이 제주도에 있고, 사진을 보시면 도9와 도10입니다. 도9를 보시면 ‘제3 석조비사부불좌상’이 서귀포 정방사에 있고요. ‘제4 석조구류손불좌상’이 보성 용연사에 있습니다. 이 상은 조성기에 의하면 원래 순천 대흥사에서 과거칠불 및 오십삼불을 한꺼번에 조성했는데 대흥사가 폐사가 되면서 이게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주도로 가고, 하나는 보성 용연사로 가고, 과거칠불 가운데 나머지 네 구가 확인이 안됐는데 짐작컨대 남원 용담사에 똑같은 크기의 상이 하나 있고, 구례 사성암에 똑같은 게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곱 분 중 여섯 분은 확인됐고, 그중 세 분은 존명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암사의 상은 현 주지스님이 이쪽에 인연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때부터 흩어진 상을 아마 모시고 있다가 정암사로 오면서 옮겨 모셔와서 지금 서울에 있게 되고, 그 내력은 거의 분명했습니다. 선대가 여수 쪽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칠불과 오십삼불 중 한 분이지만 일단 조성기가 분명하고, 또 존명도 석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불회산에서 만들었다, 장소가 경주 쪽 불회산에서 만들었고, 만든 후에 순천 대흥사로 옮겨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이런 내력

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상이어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위원장

주로 전라도 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오시는 바람에 서울에 와서 상당히 다행인 것 같아요. 불석이죠?

○ ○○○(○○대학교 교수)

예, 불석입니다.

○ ○○○ 위원

불복장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 ○○○(○○대학교 교수)

그것은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저는 사실 다라니목판을 조사하러 갔다가 이게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도 아닌데 그냥 아는 대로 적었습니다.

총 13건입니다. 조성발원문 하나하고 하나는 ‘대불정수능엄 신주’라고 해서 조그만 다라니를 목판으로 계속 찍은 그 다라니 뭉치가 20여 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책 간행본들의 일부죠. 겉장, 표지가 다 없고, 또 일부는 완본도 아니고 중간에 몇 장 뜯어진 것들인데, 책들은 보니까 다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법화경이 6건인데 모두 다 ‘成達生書本’ 계열입니다. 그중의 하나는 1436년 동화사의 간행본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미에 ‘老人隱夫’ 발문이 있는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발문이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사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나머지도 시대가 떨어지지 않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확인이 안됐는데 어쨌든 17세기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문가가 또 조사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중 하나 3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에 두 번째 장에 난 위에 ‘쌍순’이라는 시주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순이라는 시주자는 몇 권의 책에서 나오는데 1604년 능인암본의 권7 말미에 보면 대시주 쌍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능인암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주질은 권1밖에는 여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능인암본의 권7에 쌍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인암본이라고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능엄신주’가 있는데, 그것은 낱장으로 몇 개 되어 있는데 육경합부라는 책 중에 수능엄신주 부분만 뺀 것 같은데 이것도 인쇄가 굉장히 깔끔하고 연대가 15세기로 추정됩니다.

그다음에 ‘지장보살본원경’은 상·중·하 세 권이 다 있는데 표지만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간기가 있어서 무량사 판본입니다. 그런데 초간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쇄가 고르지는 않았습시다. 그러나 연대는 올라가는 판본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승기신론소권상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신안사본과 비교해 보니까 신안사본 것 같다, 그리고 제가 ○○○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 교수님도 신안사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계초생각심학입문·몽산화상법어략록’은 같이 1608년에 송광사에서 간행한 본인데 2개가 합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기가 있어서 1608년 간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635년 ‘수능엄경 권9·10’도 역시 간기가 있어서 1635년에 용장사에서 개간한 판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건이 나와 있는데 물론 복장에 있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상태가 괜찮은 판본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서지학 전공 선생님이 그때 계셨으면 더 정확한 목록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제가 그냥 해 보았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문화재 명칭은 이것을 다 같이 넣으려면 ‘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이렇게라도 붙여야 할 것 같아요.

○ ○○○(○○대학교 교수)

최근에는 명칭을 그냥 ‘복장’을 붙이지 않고 목록만 밑에 붙이는 추세여서 일단 그렇게 두었습니다. 전적이 정말 의미 있는 단권으로 나온 것도 없어서 그냥...

○ ○○○ 위원

명칭 문제는 그전에 불화를 할 때도 저는 괘불이면 괘불함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다른 선생님들이 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괘불이면 괘불만 하고 목록에서 수량에 괘불 하나, 불화 하나, 괘불함 하나,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경향에 맞추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어쨌든 흐트러지지는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설명에 수량을...

○ ○○○ 위원

예. 수량에 '불상 1점, 복장 전적 13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청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해서요.

○ ○○○(○○대학교 교수)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조'자를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석가여래'가 조금 이상해서 일단 저는 '조'자를 붙여놓았는데, 서울시 규정대로 '조'자를 안 붙이는 것이면 지정 명칭을 '석석가여래좌상'으로 지정 명칭을 하셔야 합니다.

○ ○○○ 위원장

붙이죠. 한때 안 붙였었는데 지금은 붙이지 않습니까?

○ ○○○(○○대학교 교수)

최근에도 서울시는 안 붙였어요.
그런데 또 금동은 '금동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 ○○○ 위원장

○○○님, 목조하고 석조는 그 예가 어떻게 됩니까?

○ ○○○ 주무관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요새 추세가 '조'가 많이 안 붙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석석가여래'라고 했을 때 어감이나 명칭의 의미 전달이 또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 ○○○ 위원

금동이나 유리 같은 경우는 그냥 ‘금동’, ‘유리’라고 할 수 있지만, 석조와 목조는 그게 아니잖아요.

○ ○○○(○○대학교 교수)

서울시는 어떻게 했었죠? 청은 ‘조’를 붙이는 게 확실한데요, 서울시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 ○○○ 팀장

서울시에 석조도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29호는 ‘석조 팔각석탑’으로 되어 있고, 유형문화재 328호는 ‘지장암 석조천불좌상’이라고 되어 있고, ‘석조’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쓰신 대로 ‘정암사 석조석가여래좌상’ 건은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 ○○○ 위원

잠깐만요. 이게 불복장 유물이니까 목록에 장수를 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낱장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분이 그냥 부분이라고 하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이게 1장인지, 2장인지, 10장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요. 묶여 있었는데 앞부분이 몇 장 뜯겨지거나...

여기에 제가 부분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부분이라고 안 한 것은 표지만 뜯긴 거예요. 앞에 본문이 다 있는 건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두세 장이 뜯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 열댓 장 남은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때 너무 늦게까지 해서 장수는 못 샀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다시 다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 ○○○ 위원장
어쨌든 책으로 묶여 있으니깐 그냥 그걸 1점으로...
- ○○○ 위원
건수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제가 장수는 다 못했고 그냥 건수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묶여진 낱장들은
선장본에서 다 뜯긴 거잖아요. 다 뜯겼는데 종이로 한 군데만 이렇게 묶
어놓았어요.
- ○○○ 위원
지심만 박아놓았을 것 같아요.
- ○○○ 위원
예. 한 군데만요.
- ○○○ 위원
지정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복장만 따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 ○○○(○○대학교 교수)
이미 재납입해서요.
- ○○○ 위원장
다시 넣었다고 해서 이제 못한대요.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 ○○○ 위원
그렇죠. 불상조성기의 크기를 그때 다들 정신이 없어서 재지를 못해서...
- ○○○(○○대학교 교수)
이날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우리가 다 갔다가, 늦게 갔다가 많이 추웠는
데...

○ ○○○ 위원

견고하게 안 했을 테니까 뜯어서, 그리고 따로 보관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 ○○○ 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암사 석조석가여래좌상 건’은 원안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암사 신묘장구대다라니판목’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이 판목은 그림처럼 판목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라니를 앞뒤로 새겨서 판목 자체가 꽤 큼니다. 가로 70cm, 높이가 30.5cm, 두께가 3.4cm여서 굉장히 단단하고 크고 마구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에는 <신묘장구다라니>를 하고, 뒤에는 엽전 무늬를 그린 것입니다.

<신묘장구다라니>는 천수경의 일부입니다. 천수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관음보살을 믿는 경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수경을 읽는데, 그 천수경의 핵심 부분이 이 다라니입니다. 그래서 이 다라니는 한문으로 안 하고 그냥 원문으로 그대로 읽거든요. 그것을 원문 그대로 산스크립트를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라니를 자꾸 외우면 모든 업장이 무너진다고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의 영가를 천도하기도 해서 뒤에는 돌아가신 분의 명부 가는 노자라고 해서 이런 다라니를 많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고, 중요한 것은 다라니 한쪽 구석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종산보광사판’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밑에 자세하게 나온 부분에 사진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다라니 본문인데 판이 좀 마모돼서 글씨들에 가로줄 금들이 많이 가 있는 상태이고요. 한쪽 구석에 ‘종산보광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산은 여수에 있는 종고산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데, 여수에는 지형적으로 조그만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산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부터 산

이 스스로 운다고 해서 종산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래된 사찰이고, 이 사찰의 스님이 그쪽 분이네요. 그리고 태고종 분입니다. 선암사에서 오래 주석하셨고, 지금은 서울에 와서 절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선친이 계속 태고종의 스님이셨고, 절도 갖고 계셔서 갖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판다라니 자체는 1점만 지정된 예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일괄로 지정했거나 하는데, 이것은 일괄이 아니라 그냥 1점으로 원래부터 만들어졌고, 크고 또 명문이 있어서 문화재자료 정도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 위원장

조사자께서 사이즈가 크고 해서 문화재자료로 지정했으면 하십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암사 신묘장구대다나리판목’은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것을 원안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 ○○○ 주무관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심의할 건 중에서도 예를 들면 ‘서울 관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이렇게 지정 명칭에 ‘서울’을 넣을지, 말지…

통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목록을 보면 대체로 ‘화계사 ○○도’라는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사실 저번에는 ‘마포 석불사 ○○도’라는 식으로 지정했거든요. 보니까 경향이 국가 지정일 때는 앞에 ‘서울’을 분명히 붙이고, 저희가 시에서 지정했던 것들은 대체로 ‘서울’을 많이 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건도 ‘서울 삼성암 산신도’, ‘서울 삼성암 치성광여래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붙여야 할지, 떼어야 할지…

○ ○○○ 위원장

예를 들어서 석불사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포구'라는 것이 또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별되는 것은, 지금 말씀은 정암사도 '서울'을 앞에 붙이느냐, 마느냐 하는 말씀이 시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 팀장

지금 국가 문화재는 다 앞에 '서울'을 붙이는데, 서울시 문화재는… 대체로 서울은 다 서울이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 구분이 되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마포'라든지 '성동', 그것은 붙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정암사는 노원구니까요.

○ ○○○ 팀장

'노원 정암사'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노원 정암사'로 해도 되겠습니까?

○ ○○○ 위원

'서울'이라는 말은 빼요?

○ ○○○ 위원장

어차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거니까요.

○ ○○○ 위원

그러면 '구' 정도를 붙이는 것으로…

○ ○○○ 위원장

그러면 '노원구 정암사 석조석가여래좌상'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 ○○○ 팀장

시문화재에 '서울'을 붙인 사례는 딱 1건으로 '성공회 서울성당', 그건 원

래 고유명사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 ○○○ 위원

그런데 구 명칭을 넣느냐, 마느냐를 지금 논의 중이니까요.

○ ○○○ 위원

화계사도 그럼 구 명칭을 넣으면 강북구니까요.

○ ○○○ 팀장

2개가 있을 때 가급적 붙이는 것이...

‘마포 석불사 독성도’ 문화재자료 89호, 석불사가 주로 앞에 ‘마포’라고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자료 37호 ‘최사영 가옥’도 ‘마포 최사영 가옥’이라고 붙인 사례가 있습니다.

○ ○○○ 위원

붙인다면 ‘구’를 빼고 그냥 앞에 붙이는 건가요?

○ ○○○ 팀장

예.

○ ○○○ 위원

붙이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서지도 엄청 많겠는 데요.

○ ○○○ 팀장

서지보다는, 이게 동산보다 부동산 쪽으로 갔을 때 어느 사찰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오늘 정암사 건은 붙일까요?

○ ○○○ 팀장

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앞에 ‘노원’을 붙여서 ‘노원 정암사’입니다.
다음은 61쪽 ‘금동보살입상’입니다.

○ ○○○(○○대학교 교수)

사진만 보셔도 다 아실 겁니다. 삼국시대 보살상을 레플리카

○ ○○○ 위원장

금동보살입상은 원안 부결합니다.
금동반가사유상입니다.

○ ○○○(○○대학교 교수)

사진을 보여주세요. 64쪽 사진만 보셔도 다 아실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삼국시대 보살상의 replica입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복제
품이어서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 ○○○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보살입상’은 원안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동반가사유상’입니다.

○ ○○○(○○대학교 교수)

같은 집에서 나온 건데요. 국보 반가사유상 역시 복제한 작품이어서 그냥
사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조사자의 의견대로 ‘금동반가사유상’ 역시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열두 번째 ‘감지금니섭대승론석론권제3’입니다.

○ ○○○ 위원

작품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감지금니섭대승론석론권제3〉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펴면 앞에 발원패가 있고요, 변상도 있고, 본문이 이어집니다. 감지에 두루마리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앞부분이 저기가 끝입니다. 딱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염승익이 발원한 사경을 보시면 권자본은 두루마리이고, 마지막에 표지를 막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두루마리 끝에 가는 목심을 해서 감지를 감싸고 그 가운데에 끈을 매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지를 싸게 꿈 만들었고요. 그 표지의 밖에는 경제(經題)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쓰고 당초문 같은 것으로 해서 표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펼치면 변상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앞부분이 잘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림도 없어요. 표지화로 보통 그려지는 당초문 그림 등이 없어서 이것은 약간 미완성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감지 자체는 빠닥빠닥해서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감지보다는 약간 얇고 빠닥빠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금의 발색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글씨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사경체보다는 약간 끝이 동글동글한 그런 부드러운 맛이 있기는 합니다. 앞부분에는 이렇게 변상도가 있고요. 변상도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고려의 변상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앞에 발원패가 있고, 변상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주로 충선왕 때 여기도 예시를 해봤지만 현재 리움에 있는 〈감지금자화엄경행원품〉 국보로 지정된 것과 또 보물로 지정된 호림에 있는 〈감지금니보현행원품〉 1334년 것과 형식이 똑같습니다. 충선왕 때 만든 원과 관련된, 충선왕은 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말년에도 그랬고요. 형식이 중국 사경의 형식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경 역시 충선왕이 발원한 것입니다. 충선왕이 왕을 물려주고 원에 가서 말년에 머물면서 심양왕도 조카에게 물려주고 완전히 자유인으로서 마지막에 불교에 귀의해서 발원한, 그래서 자기 부모인 충렬왕과 제국대장의장공주, 그다음에 자기 가족, 그다음에 왕이 된 아들과 조카들을 위해서 발원한 사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선왕이 직접 발원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변상도는 우리나라 식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중국 원대의 목판본의 변상도와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변상도는 이런 식으로 경전에 관계없이 설법도만 앞에 붙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대승론 석론 자체가 어떤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대승불교의 기본을 해 준 개론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학적인, 종교적인 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설법도로 앞에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경은 오래 전에 이미 돌아가신 ○○○ 선생님도 한 번 학회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 선생님의 책에 이 내용이 간단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경은 도판의 뒷부분에 보시면, 앞에 두 번째 있는 것이 끝부분입니다. 경전의 끝부분인데 ‘석대승론석론권제3’이라고 하고 그 옆이 딱 잘려져 있어요. 보통 두루마리는 본문에 얘기했듯이 두루마리 끝으로 갈수록 좁아져서 끝에 경심을 나무막대로 해서 둘둘 말거든요. 말면서 본문까지 말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딱 잘렸어요. 그래서 ○○○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분경, 경전을 분리하기 위해서 한 분경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전에 14장을 붙인 길이라든지, 또 경전 사경 앞부분에 형식을 다 갖추었는데 경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제목도 없잖아요. 앞에 표지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미완성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완성인 채로 어느 복장에 있었던 건지, 어떻게 전래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서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작품 자체는 괜찮은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경승이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으로 징발돼간 고려의 사경승이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선왕이 원에 머물고 있을 때 발원한 사경이라는 역사성도 있고, 사경 자체에 변상도도 있고, 변상도도 괜찮고, 글씨도 좋고 해서 예술성이라든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 위원장

조사자께서는 충선왕이 발원한 것이고, 이게 원나라 품이잖아요. 금니도 상당히 좋고, 미완성이라고 추정을 하셨지만 미완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 ○○○ 위원

그렇죠. 왜냐면 거기까지만 하고 또 했을 수 있는데...

○ ○○○ 위원장

어디에 넣을 수도 있고요.

○ ○○○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부분에 끊어진 것은 원래 사경의 체제로 봐서도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만 박은 그 정도만 끊어졌다는 거죠.

○ ○○○ 위원장

예. 질의 있으십니까?

○ ○○○ 위원

없습니다.

○ ○○○ 위원장

없으시면 '감지금니섭대승론석론권제3'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룡사명 동종'입니다.

도판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룡사명 동종>은 고려 후기 양식을 갖추고 있는 작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원래 소개된 것은 ○○○ 전 부산시립박물관장의 '高麗鑄金匠考-韓仲敍와 그의 作品'이라는 논문에 이것이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탁인데 소장자로 잘못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부산시립박물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걸 어떻게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추정해서 찾아보니까 부산시립박물관이 처음에 설립하고 나니까 물건이 없었대요. 그래서 세 사람 주장가 중 한 사람은 보물로 된 금동보살상을 사서 기증했고, 나머지 주장가 2명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기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 씨, 원래 부산의 소아과 원장이랍니다. ○○○ 씨가 여러 점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고, 그 이후에 소

장자가 팔았는지, 개인이 팔았는지 8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전돼서 지금의 소장자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건은 상당히 작지만 한중서라는 명문이 있습니다. 한중서는 고려 후기 주금장 중에 5점이라는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2점씩 남아 있지만. 그렇게 유명한 장인의 작품이고, 종의 모양을 보면 윗부분에 종뉴, 그다음에 고려 후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입상화문대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 유가, 보살상, 당좌, 그 사이에 명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과 가장 비슷한 게 <을사명 동종>입니다. 연대는 1245년인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그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사이즈는 조금 작고요.

사진에 보면 음통인데 보통 용의 꼬리로 음통을 감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갈귀 같은 것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각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사진은 윗부분에 주조한 흔적인데 구멍이 뚫려 있죠. 도5를 보면 안에서도 구멍이 보입니다. 원래는 음통이 뚫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주조할 때 그게 덜 나와서 뚫렸기 때문에 음통을 안에서 막은 것 같습니다. 그런 흔적을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살상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진품이 맞을까 하는 느낌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라이트로 비춰보니까 눈이 약간 퉁퉁한 눈 있죠. 통일신라부터 이어져 온 퉁퉁한 눈의 느낌이고, '을사명 종'보다는 선이 간략하지만 굉장히 굵직굵직하면서 볼륨감이 있습니다. 당좌도 역시 그렇고요. 조금 거친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명문을 보면 '대장 한중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중서의 작품은 지금이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든 것으로, 나온 것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고령사 반자'입니다. 1214년이고, 이것은 시위군으로 있으면서 제작한 것인데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소사 동종>을 1222년에 만들었는데 잘 아시죠? 상당히 잘 만든 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 중에 이것과 <복천사 반자> 둘 다 강원도 쪽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1238년인데요. 1214년에 첫 번째 작품을 했을 때는 20대 초반이라고 본다면 이 작품은 이미 장년기에 들어간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시위군이었던가 장으로 났다가 대장으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해이지만 '별장동정'이라고 또 직급을 받습니다. 별장은 정7품인데 월 만들고 하는 분들은 계급을 그에 준해서 주는 무산계입니다. 그래서 별장동정입니다. 이건 무산계 7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큰 게 <옥천사 반자>인데, 이 반자가 55cm이고, 고려 반자 중에서는 가장 커요. 그런데 이때는 발원한 사람이 국가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발원을 했고, 한중서가 여기에 장인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은 이미 이 사람이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0대를 전후한 나이에 만든 것 같습니다.

<신룡사명 동종>은 사이즈는 작으나 고려 후기의 입상화문대가 있는 전형적인 전통 형식의 종으로서 볼륨감이 있고, 무엇보다 한중서라는 고려 후기의 아주 특출한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천사 반자>와 <내소사 동종>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도9의 당좌의 문양이 어때요?

○ ○○○ 위원장

거칠죠. 거칠지만 작은 것에 비하면 이파리나 이런 게 굉장히 사실감이 있어요. 정교하지는 않은데요.

○ ○○○ 위원

잘 만들기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작은 것 치고는 잘 만든 편입니다.

그런데 입상화문대가 안 나온 것은 그게 가장 윗부분이기 때문에 주조할 때 처음부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한중서라는 작가의 작품이어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쭙보는데요. 이름을 붙일 때 명문이 들어갔으면 ‘명’자만 쓰는 건가요? ‘신룡사명’이라고요.

○ ○○○ 위원장

그게 지금 신흥사라는 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신흥소정'이라는 명문이 있어서 '신흥사명', 을사년에 만들었다고 해서 '을사명', 예를 들어 내소사도 사실은 '청림사명 내소사 동종'이에요. 그런데 '내소사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 ○○○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이즈가 같아 보이는데 많이 차이가 나네요.

○ ○○○ 위원장

예,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서울시에 한중서의 작품이 있다는 것 자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 관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물 일괄'입니다.

○ ○○○(○○대학교 교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2쪽에 조성연대가 잘못 쓰였어요. 앞의 동종이 여기 연대에 쓰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 1637년이니까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명칭을 먼저 보면, 만약 지정이 된다면 '서초 관현사'로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사진을 보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 사진을 보시면, 이 작품은 서초구의 관현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보살상입니다. 보살상의 높이가 75.5cm이니까, 보통 평균은 1m 정도 되거든요. 약간 작은 편인 상인데, 이 상은 중요한 이유가 조성기가 남아 있습니다. 높이가 낮고 긴 조성기였는데 종이 너 장을 붙여서 만든 것이고, 이 조성기에 의하면 1637년 인일 스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건 누가 뭐래도 얼굴은 인일 스님의 얼굴이거든요. 얼굴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현재 인일 스님의 작품은 이 상이 발견됨으로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주 신흥사에 있고, 두 번째는 광주 수도사에 있고, 지금 이 상이

발견됨으로써 세 번째 인일 스님의 작품이 발견되었는데요. 여주 신륵사, 광주 수도사, 여기 관현사까지 딱 3개만 나와 있어서 인일 스님의 계보가 지금 확실하게 안 잡혀 있습니다. 여주 신륵사에서도 계보를 알 수 있을 만큼 자세하지 않아서 현재 계보는 알 수 없으나, 얼굴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여주 신륵사와 비교를 해 봐도 인일 스님의 작품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88쪽 복장발원문을 보시면, 두 번째 단에 있는 게 조성기를 부분부분 찍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단에 묵인, 먹으로 찍은 묵인 다라니가 2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지 묵서 다라니가 3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인 다라니 2장, 묵서 다라니 3장, 조성기 1장, 이렇게 6점이 복장물의 모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 한 번 열려서 후렴통도 잃어버리고, 전적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다행히 조성기는 남아 있어서 인일 스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 위원장

그런데 명칭은 아까 정암사 석가여래좌상에서도 복장물이 나온 것을 우리가 목록에만 넣기로 했는데요.

○ ○○○(○○대학교 교수)

예. ‘및 복장물 일괄’을 빼고 수량에 넣겠습니다.

○ ○○○ 위원장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원래는 이게 알아보기가 훨씬 좋은데 요즘 추세가 또 그렇다고 하니까요.

‘서초 관현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원안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 ○○○(○○대학교 교수)

그리고 수량을 넣어주세요. 묵인 다라니 2장, 묵서 다라니 3장. 목록에만 넣어주세요.

○ ○○○ 주무관

그러면 지정 수량은 1구로 넣고요?

○ ○○○ 팀장

‘1구(복장유물 6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복장유물 6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금제 드리개’입니다.

○ ○○○ 위원

간단히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 ‘금제 드리개’인데, 길이를 보시면 비슷하지만 귀걸이가 아니고 관이라든가 아니면 허리띠라든가 이렇게 장식하는 금제 드리개입니다. 형식은 삼국시대 경주에 있는 호우총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나오는 것이 같습니다. 위에 큰 고리가 있고, 중간에 매다는 고리가 있고, 수직이 있고, 맨 하단에 또 하단 수직이 있고요. 이 형식은 삼국시대 금제 드리개 형식이 맞고, 관에 아마 부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위는 맞지만, 이게 완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 2점만 돌아다니는데 입수 경위도 확실하지 않고, 출토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보물로 지정된 귀걸이 등을 빼고 나머지 귀걸이든, 아니면 이런 드리개든 박물관에 지정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토지도 알 수 없고, 또 완형을 갖추지 않은 것들을 지정한다면 향후 다른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예. 완형이 아니고, 이 ‘금제 드리개’는 저희가 조사할 때 지정하기는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제 드리개’ 건은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 삼성암 산신도'입니다.

○ ○○○ 위원

이것도 '강북 삼성암'이라고 해야 하나요?

○ ○○○ 위원장

그렇네요.

○ ○○○ 위원

도판을 보여주십시오.

산신도입니다. 호랑이를 옆에 끼고 심산유곡에서 산신이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산신도는 1908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도상은 전형적인 산신도의 도상이고요. 화기란에 보면 시주를 강재희가 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불교에 많은 후원을 하고 출판도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강재희가 시주를 했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금강산 석암사 주지도 했고, 금강산화파의 대표적인 석옹 철유라는 화승이 그렸습니다. 철유는 1850년경부터 1917년에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유명한 화승이어서 돌아가실 때 1917년 매일신보와 경성신보에서도 이 사람의 부고를 알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린 화공이라고 했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고, 석왕사 주지도 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원도 화파의 사람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석옹 철유입니다. 막판에는 서울에도 와서 서울에 있는 불화를 그린 것이 몇 점 확인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안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보면 석옹 철유는 20세기 초기에 서양화 음영화법을 굉장히 잘 구사했던 사람이고,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고요. 얼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석옹 철유는 20세기 초에 유명한 화승이라는 점, 또 이 작품은 그의 작품 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작품이 잘 남아 있고, 뒷면도 다라니 등이 전통성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약간 오염된 것은 있지만 보존처리를 조금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세기 초기이지만 금강산화파의 작품이 서울에 와 있다는 점도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이건 철유의 작품이고, 많지 않죠?

○ ○○○ 위원

예, 많지 않습니다.

○ ○○○ 위원장

그런 희귀성도 있어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원안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북 삼성암 치성광여래도’입니다.

○○○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강북 삼성암 치성광여래도’입니다.

‘치성광여래도’라고 명칭은 지정신청서의 불화 명칭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요즘은 ‘치성광여래회도’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강북 삼성암 치성광여래회도’로 바로잡겠습니다. 괜찮습니까?

○ ○○○ 위원

요즘 문화재청에서 ‘설법도’ 또는 ‘여래회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 명칭이 옛날 것과 많이 달라져서요.

그림을 보면, 1909년에 조성된 이 내용을 보면 화면 중앙에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에 협시보살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치성광여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두 보살의 보관에는 각기 해와 달이 표현되어 있고, 그 주변에 칠여래(七如來)와 칠원성군(七元星君), 그리고 태상노군(太上老君, 도 1-g), 28수와 천동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도판에 보면 쓰여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치성광여래도의 아래에 보면 반가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가

좌의 자세는 치성광여래도의 수화승인 경선 응석의 근거지였던 남양주 흥국사의 <치성광여래도> (1868년, 도2)나 그가 제작했던 파주 보광사의 <치성광여래도> (1898년, 도3)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석 응석은 그 도상을 그대로 도입해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 여부에 대한 사유는 102쪽을 보시겠습니다.

삼성암 <치성광여래회도>는 1909년에 3인의 상공들이 시주자로 참여한 것으로 당시 저명한 수화승 경선 응석과 3인의 화승들이 제작하였습니다. 경선 응석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여러 불화의 범본을 제작하였던 화승으로 삼성암 <치성광여래회도>는 그가 제작한 <치성광여래회도>의 화면 구성과 도상을 적절히 변용하여 제작한 작품입니다. 정연한 화면 구성과 원만한 불·보살의 표현, 섬세한 시문 등 화승들의 역량이 잘 발휘된 작품입니다. 적극적인 금박의 사용과 화려한 문양은 상공들이 후원한 서울·경기 지역의 화려한 화풍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의 상징 문양인 오얏꽃 문양, 잘 안 보이는데 지물이 아니라 옷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얏꽃 문양을 여러 곳에 시문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 불화는 제작 시기와 봉안 장소가 명확하고, 범본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당시 수도권 불화의 제작 방식, 후원층과 관련 있는 화풍과 문양 등 서울·경기 지역의 불화의 도상과 화풍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삼성암 <치성광여래도>는 시기성과 지역성을 잘 반영한 불화로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위원장

1909년에 제작된 것인데 도상 자체는 굉장히 전통적인 것 같아요. 시대는 늦지만 전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성광 삼존과 칠원성군, 28수 등 딱 필요한 존상들만 일렬로 배열한 그림입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강북 삼성암 치성광여래회도’는 원안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건 17건을 했고요.
이제는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건 4건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국전집’입니다.

○ ○○○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상국전집>은 이규보의 문집입니다. 이규보의 손자 이 익배가 장세후, 정홍식, 전광재 등과 함께 1251년에 고려국 분사대장도감, 이때 남해 분사대장도 같습니다. 거기에서 칙명을 받들어 판각하였다는데, 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인데, 간기하고 그다음에 이 책이 발간되고 난 뒤에 다시 12권짜리 후질이 또 발간됩니다. 현재 이 책이 남아 있는 것이 완질은 지금 없고요. 남아 있는 것이 현재 신청된 국립중앙도서관의 4책이 제일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숙명여대에 3책, 성암문고에 2책, ○○ 고인쇄박물관에 1책, 그리고 개인 소장본을 제가 확인한 것이 네 군데 정도 있는데 그것도 한 책씩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상국전집>의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인 것이 확실하고, 사진을 보시면 인쇄 상태 등을 보았을 때도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선명하게 인쇄가 잘된 것입니다. 숙명여대 본과 비교해보면 숙명여대 게 조금 뒤에 찍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 문집으로 이규보의 문집이 아주 이른 시기의 간본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측면이나 문학적인 것은 더 말할 나위 없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예. 조사자의 의견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 위원

이게 다른 데 소장본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바가 있나요?

○ ○○○ 위원

아직까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 ○○○ 위원장

우리는 국가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건은 그냥 원안 가결합니다.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동보살입상’입니다.

○ ○○○(○○대학교 교수)

아까와 같은 집입니다.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이 건은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동제 범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것을 국가 문화재로 신청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보면 시대 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기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런데 고려 후기 종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종류는 원래 현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수 개념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보살상이 확 튀어나와 있어요. 이 판으로 해서 밀랍을 따로 해서 주조할 때 붙여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봐도 튀어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종에 금분을 입힌 것은 예가 없습니다. 주조 상태도 너무나 조악하고 적당히 종의 사진을 보고 만든 것 같습니다. 소장자에게는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는 불가로 하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대정3년명 금고’입니다.

이 금고도 어떻게 국가 문화재로 올릴 수 있는지, 고려시대 금고 중에 공명구가 뚫리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뒷면을 크게 뚫어서 7~8cm 정도의 전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작게 뚫어서 북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측면에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상당히 적지요. 그런데 이 금고는 상당히 불분명해요. 만든 것 자체가 잘 만든 것 같지도 않고, 현수의 고리는 3개가 있고, 내구와 외구로 나누어서 내구에는 자반과 연판문이 있는데 연판을 여기에서는 여의두문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구는 가운데 선을 하나 두르고, 외구의 가장 외연에 명문을 저렇게 새겼는데 ‘금동고’라는 명문을 새겼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마저도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 미상입니다. 그래서 국가 문화재로 올리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동의하시면 ‘대정3년명 금고’는 부결합니다.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봉 3타)

다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이번 회기의 마지막인데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산회)